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유 은 영 *

1. 들어가며

성공적인 농촌 개발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도 향상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문화, 환경,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농촌 개발은 지역 공동체와 지역의 가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문화, 역사적 장소,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농촌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있을까? 어떻게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HISTCAPE(Historic Assets and Related Landscapes-역사적 자산과 이와 관련된 자연경관)는 유럽 지역 개발 펀드의 지원을 받는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INTERREG IVC) 중 하나이다. 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은 유럽 내의 지역들이 각자의 경험과 혁신적인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자연경관을 다루는 HISTCAPE 프로젝트에서는 2014년에 ‘문화유산, 자연경관, 그리고 농촌 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촌 지역에 당면한 문제들을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보고서이다. 우수 사례에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에 가치를 더하고, 책임 있는 관광산업을 증진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거나 소득을 다각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 창출원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HISTCAPE에서 제시한 유럽 농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ordtime84@krei.re.kr)

의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농촌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세계농업 8월호에는 농촌지역의 낙후된 전통산업을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와 전통 건축양식 및 건축물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세계농업 9월호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무형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낙후된 전통산업 유산 활용 사례

2.1. 라트비아, 리가트네 시의 낙후된 제지산업 유산 활용 사례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을 보존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 문화를 보존하려면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변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작은 농촌 마을 중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주요한 산업에만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당 산업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요한 산업을 잃는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일자리 등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트비아(Latvia)의 비제메(Vidzeme) 지역에 위치한 리가트네(Līgatne) 시는 유럽 내에서 몇 안 되는 19세기 산업단지가 남아 있는 곳이다. 19세기에 지어진 제지 공장과 목조 공장 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박물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리가트네 제지 공장은 2014년에 200주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리가트네 제지산업은 격정적인 정치적 폭동과 두 번의 세계 전쟁, 수많은 화재를 겪은 와중에도 정부, 산업, 주민들의 노력으로 매번 복원되어 공장을 지속해서 운영해왔다. 현재 제지공장에는 14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하고 있고, 고품질의 예술 종이 1만 3,000톤이 생산되고 있다. 생산품의 70~80%는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제지공장과 주민 공동체가 지난 2세기 동안의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리가트네 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일찍부터 제지산업이 실패하면 공동체와 지역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식 등까지 망가질 수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래서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 산업, 공동체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갖추었다. 만약 이 중 하나의 요소라도 협력이 되지 않았다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웠을 것이다. 즉, 성공의 핵심 요소를 정리하자면 공동체가 자신들의 취약성과 핵심 산업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리가트네 제지공장



자료: LLC“PAPERFABRIKA”LIGATNE; HISCAPE(2014) 재인용.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리가트네시가 우선적으로 한 것은 지속적인 혁신과 재투자이다. 최근 들어 제지공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폐지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종이를 만들기 위한 시설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종이의 질도 높아, 젊은 예술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또 다른 핵심 실천은 산업 및 환경 투어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다. 공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재활용하고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폐지가 어떻게 수집되고, 펄프로 회석되어 정교한 예술적인 종으로 재탄생하는지 전 과정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투어 기간 동안 방문자들은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제지산업과 마을의 역사도 함께 배운다. 방문 후 관광객들은 소매점을 방문하여 특별한 종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리가트네는 자신들이 가진 이러한 산업 문화유산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부터 이를 역사적 자산으로 규명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체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리가트네 제지 공장 마을의 문화적 자산 여행길'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7월에 리가트네 제지 공장 마을은 유럽 연합의 '유럽의 훌륭한 장소' 경연에서 라트비아의 가장 뛰어난 관광 명소로 꼽히기도 했다. 공동체와 산업이 함께 전통을 유지하고 동시에 변화를 받아드리면서 리가트네의 혁신은 지속되고 있다.

2.2. 슬로베니아, 코제 시의 농업유산 활용 사례

슬로베니아(Slovenia) 동부에 위치한 코제(Kozjansko) 시의 언덕에선 목초지 과수 재배가 전통적으로 이루어졌고, 한 때 농업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다. 목초지 과수는 토양 침식과 바람으로부터 지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과수 재배는 농가의 수입을 보충해주고, 과수 생산 문화, 생산품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 농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과일을 경작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많은 농가들이 인력 부족과 도시로의 이주, 낮은 이윤 등의 이유로 과수원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생물 다양성, 전통적 풍경, 문화 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목초지 과수는 한 때 코제 시의 독특한 풍경이었다. 농부들은 사과, 배, 살구,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을 경작했다. 과일 나무들은 농가에 부수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양원을 공급해주었다. 또한 멸종위기의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수많은 종류의 새, 벌, 목초지 식물들이 울창한 덤불 속에서 번성했다. 뿐만 아니라 수확부터 과일을 보존하고 판매하기 위한 준비까지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축복하면서 나뭇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연적인 생산 주기에 의존하고 있고 생산량이 낮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생산방식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과수 재배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것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여했던 가치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다.

과수 재배를 보존하는 것은 생물다양성과 풍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확하는 과정,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 등의 이를 둘러싼 모든 문화적인 유산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0년도에 공원 경영센터에서는 문화유산을 증진하고, 농업인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품과 지식을 선보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것이 발전하여 유럽의 독특하고 유명한 행사인 ‘코제 사과 페스티벌’로 정착하였다. 초기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전문가 회의와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전시하는 개막식을 진행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시장, 문화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페스티벌 등이 진행되었다.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현재 행사기간은 일주일로 확대되었다.

이 지역에서 사과는 언제나 단순 과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제 사과 페스티벌의 브랜드명도 ‘영혼과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 시장’이다. 페스티벌을 시작할 때부터 공원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포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과’를 상징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사과 테마는 초록색, 빨간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유니폼 색으로도 활용되었고, 매장의 식탁보 무늬로도 활용되었다. 상징표시나 페스티벌 홍보에서도 이러한 테마가 포함되었다.

<그림 2> 코제 사과 페스티벌



자료: Kozansko Park; HISCAPE(2014) 재인용.

페스티벌에선 농가, 주민 공동체, 상인, 환경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단체들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130여 개의 매장이 설치된다. 다양한 사과를 주제로 한 행사, 레크레이션, 스포츠 게임 등이 개최된다. 예를 들면, 사과 껍질 길게 깎기 경연대회, 스트루들(사과를 잘라 밀가루 반죽에 얇게 싸서 오븐에 구운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 목초지 재배지 투어, 근처 성까지 달리기 대회, 사이클링 대회 등 다양하다. 2009년부터는 과수원을 가장 잘 가꾼 농가를 뽑는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페스티벌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원 경영센터의 업무는 계속된다. 최근에는 이동하는 과일처리 장비를 구매해서, 농장을 돌아다니며 유기농 주스를 만드는 등 과수 재배에 따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첨가물과 방부제가 없는 건강한 주스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

역사적인 정착지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포드스레다 마을은 비스트리카 강 상류 쪽에 위치한 계단식 고원에 있는 마을로, 206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1377년부터 시장이 있던 곳이다. 공원 경영센터는 이 독특한 중세 스타일의 단층 또는 복층의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과거의 시장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곳에 1만 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다. 공원 경영센터는 2013년부터 이 마을에 위치한 포드스레다 성에서 '에코 푸드 페스티벌'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코제 시 공원은 풍경과 역사적인 과수 재배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와 삶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발전의 실천 원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개발하거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은 현대적인 것,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목초지 과수 재배와 사과 다양성은 문화적 풍경을 보존하는 상징이자, 생물 다양성과 직결되는 서식지 보호의 상징이며, 과거에 나무를 심었던 선조와 현세대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3. 에스토니아 서부, 사레마 섬의 풍차 활용 사례

에스토니아(Estonia) 서부 사레마(Saaremaa) 섬엔 1890년부터 1,200개의 풍차가 있었다. 1950년대쯤, 전기가 섬에 공급되면서 풍차의 수는 800개 아래로 감소했다. 지금은 대략

100개의 풍차가 있고 20개 정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풍차는 한때 섬의 상징물이었다. 이것들이 풍경을 만들고 각각의 작은 마을들을 위한 포인트 지점이 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상징물을 잃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풍차를 보존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 중요한 상징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방안으로 풍차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고, 공적 자금과 결합된 민간 자금원도 찾았다. 바로 에스토니아의 상업회의소(Altia Eesti Ltd.)와 사레마 섬의 관광 개발 센터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풍차에는 상업회의소 ‘사레마’(Altia Eesti ‘Saaremaa’)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 크기로 새겨져 있다. 사레마 관광 개발 센터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상업회의소에 새로운 가치 제안을 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게 풍차의 중요

<그림 3> 사레마 섬의 풍차



자료: Saaremaa Tourism Development; HISCAPE(2014) 재인용.

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풍차에 새겨진 '사레마' 브랜드가 섬의 정체성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풍차의 설계도, 역사 등을 기록한 자세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섬에 있는 모든 풍차의 상태를 점검한 평가서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상업회의소에게 신뢰를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13년에 사레마 관광 개발 센터와 상업회의소는 풍차를 장기간 동안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합의를 했다. 풍차가 에스토니아와 사레마 섬의 중요한 역사적 기념물이자 독특한 문화적 상징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은 풍차를 유지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풍차의 복구 작업은 2013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풍차 주변지역을 깨끗이 정화하는 작업도 이어졌고, 전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풍차를 복구할 때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한 점과, 이를 위해 기능공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 이 사례의 또 다른 성공 요소이다. 무형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기능공을 육성하는 것은 풍차를 계속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풍차 복원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매년 이 곳에서 여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사기업, 지자체 정부, 지역 주민이 화합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2014년엔 일라스테(Ilaste) 풍차를 재건축하였다. 이 풍차는 에스토니아의 유명 작가 아두 힌트(Aadu Hint)가 살았던 마을에 있는 풍차로 유명하다. 이 풍차를 재건하는 것 역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조한 덕에 가능했고, 재건 이후 보존하는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 맡아 하고 있다. 풍차가 재건되고 나서, 마을에선 풍차 가까운 곳에서 아두힌트의 삶과 작품들을 전시하는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3. 건축물 유산 활용 사례

3.1. 포르투갈 북부, 세인트 마틴 수도원(The Mosteiro de São Martinho de Tibães)

교육과 문화는 농촌 공동체의 삶의 질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역사, 문학, 건축, 예술,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공동체라는 인식을 만들며,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다준다.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또한 교육 및 문화 관련

<그림 4> 세인트 마틴 수도원



자료: Monastery of Tibães, Portugal; HISCAPE(2014) 재인용.

행사는 광범위한 관중들을 끌어올 수 있고, 방문자에게 지역사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유럽의 대부분의 마을은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가 지역 공동체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증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버려진 장소가 성공적으로 복구되고, 교육 및 문화 포럼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포르투갈 북부에 있는 세인트 마틴 수도원은 1060년에 신앙, 농업, 교육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수도원은 빠르게 번성했고,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수도원은 종교적인 탄압을 받기도 했고,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 폐허가 되기도 했다. 이후 버려진 고대 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주민들이 수도원을 다시 복구하여 본래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986년에 수도원은 지역의 문화자산이 되었고, 장기간의 광범위한 복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복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루어졌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한 복구 프로젝트는 지역의 특성과 중요한 역사적, 사회적,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열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도 복구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는 것 역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신앙, 농업, 교육의 역할을 함께 복구함으로써, 이 장소는 신앙생활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자 과수원, 경작지로서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자체에선 이러한 중요한 장소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담 인력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꾸렸다. 전문가 집단의 노력으로 수도원은 공식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증 받았고, 1994년엔 주변 지역에 문화유산 보호벨트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원의 증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장기계획이 만들어진 후, 수도원의 물리적인 복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맥락에서 이 건축물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수도원이 물리적으로 모두 복구된 이후, 수도원 건물들은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적 허브로 사용되고 있다. 수도원에는 교육적 공간, 시장, 도서관, 박물관, 연구센터, 비즈니스 센터 등의 건물들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천주교 성구실과 예배당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도원은 농촌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센터,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의 시설도 갖추었다.

수도원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이 실천되면서, 농촌 주민의 공동체 의식도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었고,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증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문화, 종교생활 등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주었다.

3.2. 오스트리아 동부, 슈타이어마르크 주 농촌의 전통 건축양식 보존 사례

농촌 지역의 특징적인 외관은 그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문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현대적인 건축 기술과 자재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농촌

<그림 5>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전통 건축물과 풍경



자료: Rand Eppich; HISCAPE(2014) 재인용.

지역의 특징적인 외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건축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지자체 당국은 평균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여 전통 양식으로 건물을 짓거나, 현존하는 건물을 복원할만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전통 건축물에 대해 존경하는 인식을 높이고, 건축 양식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오스트리아(Austria) 동부에 위치한 슈타이어마르크(Styria) 주는 여러 세기에 걸쳐 전통적인 농업 활동과 전통적인 주택 양식으로 형성된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문화적 환경은 마을과 풍경의 외관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자연과 문화적 경관은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큰 흥미거리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풍경과 건축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슈타이어마르크 주 남부 와인랜드 공원에 속해 있는 지자체 당국은 2006년부터 지역의 전통적인 외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 문화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 건축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건축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슈타이어마르크 주 남부의 지방 건축 당국이 주관하고 있다. 주요한 목적은 전통 양식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건축 문화 플랫폼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주체들은 서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 문화 플랫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에선 지역의 전통 양식에 따라 짓는 건축물에만 설립 허가를 내린다는 원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건축 양식을 통일시켰다. 지자체 당국 내에 건축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자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었고, 이 기관은 건물 설립 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를 전문 지원한다. 자문기관은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있고, 농촌 지역 내의 무분별한 건축 활동을 제한하여 지역의 전통적인 경관을 보호하려고 설립되었다. 자문기관은 건물 기획과 설립 시 필요한 명확한 품질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기관은 2006년부터 자연 공원에 속해있는 3개의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현재는 8개 지자체의 1만 2,000명의 주민들을 위해 3명의 건축가로 이루어진 3개의 자문팀이 활동하고 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자문팀이 직접 평가하고, 건축물 모양, 주변 경관과의 조화, 전통적인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에게 조언을 한다. 자문기관은 허가 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 명이 하지 않고 팀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다. 매년 300개 이상의 건축 프로젝트에 자문을 하고 있고, 이것이 초기 건축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많은 사례들이 있다.

플랫폼의 또 다른 목적은 건축 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민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자연 공원 내에 있는 학교들과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의 건축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와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전통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교재도 개발되고 있다. 학교 교육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래에 집을 지어 살게 될 학생들에

<그림 6>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



자료: Naturpark Südsteiermark / Nature Park South Styria; HISCAPE(2014) 재인용.

게 부모와 함께 공유해왔던 건축 문화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건축 문화 플랫폼에서는 학교 교육뿐 아니라, 전문가와 건축업자들이 서로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행사와 학술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축 문화에 대한 주제가 지역 신문, 잡지, 다른 대중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지역 주민들도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4. 소결

위에서 소개한 유럽의 사례들처럼 농촌 지역의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풍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농촌 개발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HISCAPE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진심으로 아낀다. 그만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 개발을 이루는 일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가 전적으로 주도하여 지역 공동체에게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스스로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전문가와 지자체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유지 및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농촌개발은 건축분야, 경관분야, 관광분야, 문화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획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로 이루어진 지원기관 및 협의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HISCAPE(Historic Assets and Related Landscapes). 2014. cultural heritage, landscape & rural development-Good practice, Methodology, Policy Recommendations & Guidelines for Rural Communities.